

한국어 조사 ‘-에’와 대응하는 중국어표현에 관하여

전치사 ‘저’와의 대응을 중심으로*

金琮鎬** · 南良祐***

目次

- I. 서론
- II. 한국어 조사 ‘-에’
- III. 한국어 조사 ‘-에’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 IV. ‘-에’와 ‘저’의 대응조건
- V. 결론

I. 서론

한국어 조사 ‘-에’의 용법은 매우 다양하다. 이 때문에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조사 ‘-에’가 있을 경우, 중국어로의 정확한 번역이 쉽지 않다. 국립국어연구원(1999)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한국어 조사 ‘-에’의 용법은 총 15가지인데, 이 중 ‘앞말이 어떤 대상’임을 나타내는 용법이 7가지로 가장 많다. 따라서 한국어 조사 ‘-에’가 ‘앞말이 어떤 대상’임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사용될 때, 그 중 하나라도 항상 대응되는 특정 중국어 전치사를 규명해 낼 수 있다면, 즉 한국어 조사 ‘-에’가 7가지 용법 중 첫 번째 용법으로 사용될 때는 ‘저’를 사용하면 항상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 이 연구는 2010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이루어진 것임

** 韩国外国语大學校 大学院 中語中文學科 教授

*** 韩国外国语大學校 大学院 中語中文學科 碩士課程

있다면,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조사 ‘-에’가 ‘앞말이 어떤 대상’임을 나타내는 7가지 용법 중 하나로 사용될 때, 이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용법에서는 항상 대응되면서 문법적으로 오류가 생기지 않는 특정 중국어 전치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그 특정 중국어 전치사가 ‘저’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다시 말해 조사 ‘-에’가 ‘앞말이 어떤 대상’임을 나타내는 7가지 용법 중 하나로 사용된 한국어 문장을 중국어로 옮기는 데 있어, 최소 하나 이상의 용법은 항상 ‘저’를 사용해 표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저’를 선택한 이유는 원형범주이론¹⁾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인에게 있어 ‘대상’하면 연상되는 가장 원형적인 중국어 전치사는 ‘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가설하에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현대 중국어와 영어 전치사에 대한 비교연구는 활발한 편이나 한국어 조사와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전치사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다고 말하기 힘들다. 그 중 崔健(2002)의 연구는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전치사의 대응관계를 비교적 전면적으로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崔健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범주표현을 각각 지칭, 방위, 처소, 추향, 존재, 시간, 수량, 도구와 재료, 비교, 범위, 정도, 빈도, 부정, 접속으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처소, 공구와 재료, 비교의 범주에서 현대 중국어 전치사와 대응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쓰임 차이에 대해 통사, 의미, 화용적으로 상세히 기술했다²⁾. 그러나 중국어 전치사와

1) 인간이 원형적 실례들을 중심으로 세계를 범주화한다는 이론이다. 원형은 그 범주를 대표할 만한 가장 ‘전형적, 이상적, 중심적’ 보기로서 ‘새’의 원형적 보기는 ‘참새’라 할 수 있으며, 비원형적 보기는 ‘펭귄, 타조’라고 할 수 있다. Rosch는 여러 번에 걸친 인지 심리적 실험들에서 자연 범주들은 원형적인 실례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원형들은 우리의 경험에 가장 자주 나타나고 가장 일찍 배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Rosch는 또한 이 원형이 인지적으로 심리 속에서 현저한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비원형적 구성원들은 원형에 닮은 정도에 따라서 범주에 동화되며, 구성원 자격의 판단은 정도의 문제이므로 원형과 가장 많이 닮은 구성원은 범주의 중심적 구성원이 되는 반면, 적게 닮을수록 주변으로 밀려나서 범주에 동화될 가능성 또한 멀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김종도, 『인지문법의 디딤돌』, 서울:박이정, 2002, p.111

2) ‘在(배경처소)/从(기점)/往,向,朝(방향)/从(경유점)/从……到, 到(~까지)/在(결과위치),

대응되는 한국어 조사의 일대일 대응 비교에 치중한 나머지 '-에', '-에서' 등 한국어 조사의 다양한 중국어 표현, 또는 중국어 전치사의 한국어 표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³⁾

박창수(2005), 왕붕, (2008), 황정숙(2009), 高菲(2009)는 한국어의 조사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전치사라는 일반화된 인식이 정확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인들이 한국어 조사를 학습함에 있어서 비교적 오류가 많은 '-에', '-에게', '-에서', '-로'가 중국어로 어떻게 대응되는지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 조사 '-에', '-에게', '-에서', '-로'는 상당 부분 중국어 전치사와 대응되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동사로만 표현이 가능함을 찾아냄으로써, 한국어의 격조사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이 전치사라는 일반화된 인식에 오류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한 가지 한국어 표현에 여러 가지 중국어 표현이 대응될 수 있다는 점에 그치고 있어,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어떤 한국어 조사와 어떤 중국어 표현이 대응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⁴⁾ 이에 본 연구는 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조사 '-에'와 '저'의 대응관계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한다.

II. 한국어 조사 '-에'

우선 한국어 조사 '-에'의 의미 및 용례를 살펴보자.

아래 <표1>은 국립국어원(1999)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조사 '-에'의 의미 및 용례를 정리한 것이다⁵⁾.

用/以(차이)/跟……一样'이 각각 '-에서/ -에서(부터)/ -로, -을 향하여/ -(으)로/ -까지/ -에/ -로/ -로(써)/ -보다/ -와 같다'와 대응하는 것으로 봄

3) 박창수(2005)에서 인용

4) 조사 '-에'에 대한 국어학 연구로는 남승주(1985), 이기동(1981), 호정은(1997), 홍순성(2003), 안명철(1982), 이광호(1984) 참고

5) 사전상의 실제 순서는 <표1>과 차이가 있으나, 편의상 '대상'에 해당되는 용법들을 하나로 묶어 정리하였다.

<표1>

구분	의 미	용 례	
1	앞말이 장소·위치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옷 <u>에</u> 먼지가 묻다.	
2	앞말이 시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봄 <u>에</u> 진달래가 핀다.	
3	앞말이 진행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동생은 집 <u>에</u> 갔다.	
4	앞말이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바람 <u>에</u> 꽃이 지다.	
5	앞말이 조건, 환경, 상태 따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모든 것은 생각하기 <u>에</u> 달려 있다.	
6	앞말이 맡아보는 자리나 노릇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춘향 <u>에</u> 성희, 이도령 <u>에</u> 춘수였다.	
7	앞말이 제한된 범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포유동물 <u>에</u> 무엇이 있지?	
8	앞말이 무엇이 더하여지는 뜻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국 <u>에</u> 밥을 말아 먹다.	
9	대 상	앞말이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그는 자기의 일 <u>에</u> 열의가 대단하다.
10		앞말이 목표나 목적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몸 <u>에</u> 좋은 보약
11		앞말이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거짓말 <u>에</u> 속지 마라.
12		앞말이 수단, 방법 따위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예전에는 등잔불 <u>에</u> 글을 읽었다.
13		앞말이 기준되는 대상이나 단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시대 <u>에</u> 뒤떨어지는 생각은 하지 마라.
14		앞말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그 아버지 <u>에</u> 그 아들
15		앞말이 지정하여 말하고자 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반장을 선거하는 데 <u>에</u> 있어서 성적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다.

조사 ‘-에’의 의미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⁶⁾. 그

6) 서정수는 ‘-에’의 의미를 ‘소제지·존재’, ‘낙착점·귀착점’, ‘목적지’, ‘도착점’, ‘받는 이’, ‘받을 이’, ‘추상대상’, ‘시점·순간’, ‘시간대·지역’, ‘차례’, ‘수단’, ‘까닭’, ‘상대’의 13가지로 분류하였다. 또 남영신은 ‘-에’를 ‘위치’, ‘지향점’, ‘원인’, ‘기준점’, ‘중점’, ‘방편’, ‘목적’, ‘단위’, ‘대상’, ‘범위’, ‘자격’, ‘환경·조건’, ‘나열’의 13가지로 분류하였다. 이희자·이종희는 ‘-에’를 ‘장소·자리’, ‘대상’, ‘기준’, ‘자격’, ‘원인·이유’, ‘도구·수단’, ‘시간’,

중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조사 '-에'의 쓰임에 있어 대상에 대한 용법을 매우 세분화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조사 '-에'의 의미를 중심으로 중국어 '저'와의 대응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조사 '-에'가 '앞말이 어떤 대상'임을 나타내는 7가지 용법 중 하나로 사용될 때, 반드시 대응되는 특정 중국어 전치사가 '저'인지 살펴보기에 앞서, 한국어 조사 '-에'의 각 용법이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먼저 살펴보자.

III. 한국어 조사 '-에'와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3.1 장소·위치 표현

한국어 조사 '-에'가 '앞말이 장소·위치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의 용법으로 쓰일 때 대응하는 중국어 구조로는 '동사在+장소NP', '장소NP+有', 'V+在+장소NP', '在+장소NP+V', 'V+到+장소NP', 'V+장소NP' 등이 있다.⁷⁾

- (1) a. 부모님은 집에 계신다.
b. 父母在家。(Ø)⁸⁾
- (2) a. 집안에 경사가 났다.

⁷⁾ '상황이나 출전', '단위', '간헐 언어 단위내', '다른 언어와 결합', '관용표현'의 12가지 의미로 나누었다. 박창수, 「한국어 조사 '에', '에서'와 상응하는 중국어 표현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20

⁷⁾ 박창수, 「한국어 조사 '에', '에서'와 상응하는 중국어 표현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38

⁸⁾ 'Ø'표시는 조사 '-에'에 대응하는 중국어 전치사가 없다는 의미로, 'V+NP'구조, 혹은 'NP'구조가 전치사 없이 직접 '-에'에 상응하는 경우이다.

- b. 家有喜事。(∅)
- (3) a. 자료는 컴퓨터에 보존되어 있다.
b. 资料保存在电脑里。
- (4) a. 칠판에 글씨를 쓰다.
b. 在黑板上写字。
- (5) a. 책상 옆에 두십시오.
b. 请放到桌子旁边。
- (6) a. 의자에 기대어 졸다.
b. 靠着椅子打盹儿。(∅)

예문 (1)은 ‘동사+在+ 장소NP’, (2)는 ‘장소NP+有’, (3)은 ‘V+ 在+ 장소NP’, (4)는 ‘在+ 장소NP+ V’, (5)는 ‘V+ 到+ 장소NP’, (6)은 ‘V+ 장소NP’에 해당한다.

3.2 시간 표현

한국어 조사 ‘-에’가 앞말이 ‘시간’을 표시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의 용법으로 사용될 때,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다양한 편이다.

황정숙(2009)은 시간과 관련한 표현을 ‘시간의 경과’, ‘특정시간’, ‘시간사’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황정숙에 따르면 한국어 조사 ‘-에’가 시간의 뜻을 나타내면서 그 중에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면, ‘在’를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 (1) a. 우리 10년 후에 여기에서 다시 만나자.
b. 我们(在)十年后在这里见面吧。
- (2) a. 하루에 8시간을 자는 것이 제일 좋다.
b. (在)一天睡8个小时为最好。

한국어 조사 '-에'가 '특정시간'을 나타낼 때에는 '在'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주어 앞에 올 때는 '在'를 사용할 수 없다.

- (1) a. 나는 아침에 운동을 한다.
 b. 我(在)早上运动。
 (2) a. 12월에 중국에 간다.
 b. (*在)12月我要去中国。(∅)

그리고 '시간사'에 '-에'가 붙는 경우에는 시간사만으로 표현한다.

- (1) a. 이 일은 나중에 다시 토론합시다.
 b. 这件事(*在)以后再谈。(∅)
 (2) a. 내가 없는 동안에 잘 지냈니?
 b. (*在)我不在的时候过得好吗?(∅)

한편, 박창수(2005:38)에 따르면 한국어 조사 '-에'가 시간을 나타낼 때,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단독으로 쓰이거나,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在', '실'을 부가하거나, '동사+在/于+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의 형식을 취한다.

- (1) a. 그 시간에 뭐 할 거니?
 b. 那时候想做什么?(∅)
 (2) a. 주말에 등산이나 갈까요?
 b. 周末去爬山, 好不好?(∅)
 (3) a. 내가 졸업하던 그 해에 형이 외지에서 돌아왔다.
 b. 当我毕业那一年, 哥哥从外地回来了。

- (4) a. 진달래는 이른 봄에 핀다.
b. 金达莱开在早春。
- (5) a.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수립되었다.
b. 中华人民共和国成立于一九四九年。
- (6) a. 막스는 1818년에 태어났다.
b. 马克思生于一八一八年。

예문 (13), (14)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이며, (15)는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 ‘당’을 부가한 경우, (16), (17), (18)은 ‘동사+在/于+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의 형식을 취한 경우이다.

3.3 진행방향 표현

한국어 조사 ‘-에’가 앞말이 ‘진행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의 용법으로 사용될 때,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전치사 ‘到’를 사용하여 ‘到…去’, ‘到…来’로 나타내거나, 전치사 없이 동사가 직접 진행장소를 목적으로 취한다.⁹⁾

- (1) a. 학교에 가다.
b. 到学校去。
- (2) a. 지금 산에 간다.
b. 现在到山里去。
- (3) a. 현지 시간으로 8시 15분에 런던에 도착합니다.
b. 当地时间八点一刻到达伦敦。(∅)

9) 박창수(2005:45~47)는 진행방향을 ‘행동의 목표가 되는 장소’, ‘이동이나 사건의 도달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드나드는 곳’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세 가지 경우 모두 ‘동사+ 목적어’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 (4) a. 그녀의 큰딸은 대학에 다니고 있다.
b. 她的大女儿在上大学。(∅)

예문 (19), (20)은 전치사 '到'를 사용하여 진행방향을 나타내었고, (21), (22)는 동사가 진행장소를 목적어로 취한 경우이다.

3.4 원인 표현

한국어 조사 '-에'가 '앞말이 원인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의 용법으로 쓰일 때, 중국어에서는 '因为', '因', '由于', '被' 등 다양한 전치사로 표현이 가능하다.¹⁰⁾

- (1) a. 추위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겠다.
b. 因为寒冷, 一步也走不动了。
(2) a. 그까짓 일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마라.
b. 别因小事伤心情。
(3) a. 아이가 북소리에 놀라 막 운다.
b. 小孩因(由于)鼓声受惊而哭。
(4) a. 산길이 큰 눈에 막혔다.
b. 山路被大雪封住了。
(5) a.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 잠이 깨었다.
b. 被孩子们的闹声吵醒了。
(6) a. 옷이 비에 흠뻑 젖었다.
b. 衣服被雨水淋透了。

10) 高菲, 「한국어 조사와 중국의 개사의 대조연구 : '-로', '-에', '-에서', '-에게'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61

예문 (23), (24), (25)는 각각 ‘因爲’, ‘因’, ‘由于’가 원인을 나타내며, (26)~(28)은 ‘被’에 의해 원인 의미가 나타나고 있다.

3.5 조건이나 환경 표현

한국어 조사 ‘-에’가 앞말이 ‘조건이나 환경’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사용될 때, 중국어에서는 ‘在…下’, ‘在…中’ 등과 같이 ‘在+ 조건이나 환경이 되는 말+ 방향사’의 구조로 표현이 가능하다.¹¹⁾

- (1) a. 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니?
b. 在这么热的天气下, 怎么过的?
- (2) a. 여러 사람들의 도움 하에 물에 빠진 아이를 강기슭으로 구해냈다.
b. 在大家的帮助下, 把落水儿童救上了岸。
- (3) a. 우리나라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한다.
b. 在我们国家的俗语中说知人知面不知心。

예문 (37), (38)은 ‘在…下’의 형태로, (39)는 ‘在…中’의 형태로 조건이나 환경을 나타내고 있다.

3.6 말하는 자리나 노릇 표현

박창수(1999:61)에 따르면, 한국어 조사 ‘-에’가 앞말이 ‘말하는 자리나 노릇’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일 때, 중국어로는 ‘동사+ 为+ 자격이나

11) 황정숙,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 에게, 에서, 로’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37

자리를 나타내는 명사'나 '동사+ 자격이나 자리를 나타내는 명사'로 표현할 수 있다.¹²⁾

- (1) a. 반장에 그가 뽑혔다.
b. 他被选为班长。
- (2) a. 비서에 임명되다.
b. 任为秘书。
- (3) a. 춘향에 성희, 이 도령에 춘수였다.
b. 成喜饰春香, 春秀饰李公子。(∅)

예문 (40), (41)은 '동사+ 为+ 자격이나 자리를 나타내는 명사'의 형태로, (42)는 '동사+ 자격이나 자리를 나타내는 명사'의 형태로 '맡는 자리나 노릇'의 '-에'를 표현하였다.

3.7 범위 표현

한국어 조사 '-에'가 앞말이 '범위'를 나타내는 격 조사로 사용될 때, 중국어로는 방위사 '里', '中' 등을 사용하거나 동사 '属于'를 사용하여 표현이 가능하다.¹³⁾

- (1) a. 포유동물에 무엇이 있지?
b. 哺乳动物里都有什么?
- (2) a. 이곳에서 생산되는 것에 좋은 것이 있다고 들었다.

12) 이 때 '~의 자격을 얻다'란 의미를 나타낼 때는 전자가, 담당 역할이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나타낼 때는 후자가 대응된다. 황정숙,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 에게, 에서, 로'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38

13) 高菲, 「한국어 조사와 중국의 개사의 대조연구 : '-로', '-에', '-에서', '-에게'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65

- b. 听说这里生产的产品中有好的。
- (3) a. 언어학도 인문과학에 속한다.
- b. 语言学也属于人文科学。(∅)

예문 (43), (44)는 각각 방위사 ‘里’, ‘中’을 사용하여, (45)는 동사 ‘属于’를 사용하여 ‘범위’를 나타내었다.

3.8 첨가 표현

한국어 조사 ‘-에’가 앞말이 ‘무엇이 더하여지는 뜻’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의 용법으로 사용될 때, 중국어로는 ‘在…里’로 표현이 가능하다. 단, 수학적 문장에서는 동사로 직접 표현한다.¹⁴⁾

- (1) a. 국에 밥을 말아 먹다.
- b. 在汤里泡饭吃。
- (2) a. 커피에 설탕을 타다.
- b. 在咖啡里加糖。
- (3) a. 3에 4를 더하다.
- b. 三加四。(∅)

예문 (46), (47)은 ‘在…里’의 형태로, 수학적 문장인 (48)은 동사로 직접 ‘첨가’의 ‘-에’를 표현하였다.

3.9 대상 표현

14) 황정숙,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 에게, 에서, 로’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39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에'의 15가지 용법 중 '대상' 관련 용법은 7가지로 그 수가 많다.¹⁵⁾ 따라서 '-에'가 '대상' 관련 용법으로 쓰일 때의 중국어 표현방법 역시 '被', '对', '为' 등의 전치사를 사용하거나 동사로 직접 표현하는 등 매우 다양하다.

- (1) a. 그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오.
b. 不要被他的谎言所欺骗。
- (2) a. 그는 중국어에 관심이 있다.
b. 他对汉语很感兴趣。
- (3) a. 그는 교육 사업에 열의가 대단하다.
b. 他对教育工作很有热情。
- (4) a. 이 약은 감기에 잘 듣는다.
b. 这种药对感冒很有效。
- (5) a. 나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
b. 我给花浇了水。
- (6) a. 신문사에 글을 써 준다.
b. 为报社写文章。
- (7) a. 할머니는 강물에 옷을 씻는다.
b. 奶奶用河水洗衣服。
- (8) a. 그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b. 那是有违礼貌的行为。(∅)

그럼 아래에서 각각의 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¹⁶⁾

- 15) <표1>에 따르면 한국어 조사 '-에'의 대상과 관련된 용법은 움직임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 목표나 목적대상, 수단·방법의 대상, 기준대상, 비교의 대상, 앞말이 지정하여 말하고자 하는 대상의 7가지가 있으나, 3.9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묶었다.
- 16)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을 가장 충실히 반영한 박창수(2005)의 연구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3.9.1 어떤 작용이 미치는 대상¹⁷⁾

한국어 조사 ‘-에’가 ‘앞말이 어떤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의 용법으로 쓰일 때, 이에 대응되는 중국어 표현은 ‘对+대상명사’라고 할 수 있다.

- (1) a. 그는 중국어에 관심이 있다.
b. 他对汉语很感兴趣。
- (2) a. 그는 교육 사업에 열의가 대단하다.
b. 他对教育工作很有热情。
- (3) a. 그의 거짓말에 두려움을 느낀다.
b. 对他说的谎言感到恐怖。
- (4) a. 나는 그의 병세에 대해 관심이 많다.
b. 我对他的病情很关心。
- (5) a. 이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
b. 我对这种方式不大习惯。

작용이라는 것은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¹⁸⁾이다.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관심·열의·두려움은 원래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요소이다. 이 내재된 요소에 중국어·교육사업·거짓말이 영향을 미쳐 내재되어 있던 관심·열의·두려움이 활성화(activation)¹⁹⁾된 것이다. ‘관심’이라

17)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3.9.1과 3.9.3을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이라고 하여 동일한 용법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각각의 중국어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구분하였다.

18) 국립국어연구소, 『표준국어대사전』, 서울:두산동아출판사, 1999, p.5161

19) 활성화란 LCCM 이론(Vyvyan Evans가 개발한 어휘적 표상과 의미적 합성에 관한 이론으로, 핵심내용은 어휘적 개념과 의미가 기본적으로 구분된다는 것)에서 의미적 잠재력의 부분이 해당 발화에서 국부적 의사소통을 위해 보충되는 과정이다. 이 때 어휘적 개념은 의미적 잠재력에 접근을 제공한다. 임지룡·김동환 옮김, 『인지언어학 용어사전』, 서울:한국문화사, 2010, p.23

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하지만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다. 호흡은 끊임없이 항상 지속되어야 하지만, 관심은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다. 또 어떤 때는 오래 유지되고, 어떤 때는 짧은 시간만 유지된다. 따라서 '관심'이라는 속성은 비지속적이며, 어떤 때는 외적으로 표출되고, 어떤 때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다. 그러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주어지면, 이 상황이나 조건이 자극이 되어 내재되어 있던 '관심'이라는 속성이 활성화되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예문의 '열의', '두려움' 역시 마찬가지다. 즉 앞말이 어떤 작용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조사 '-에'가 사용되는 문장은 주어에게 작용을 미치는 요소인 '저'의 목적어와 문장의 주어에 내재되어 있던 속성이 활성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술어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3.9.2 목표나 목적 대상

아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 조사 '-에'가 '앞말이 목표나 목적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의 용법으로 쓰일 때, 중국어는 전치사 '저'를 사용해 표현한다.

- (1) a. 이 약은 감기에 잘 듣는다.
b. 这种药对感冒很有效。
- (2) a. 보약은 몸에 좋다.
b. 补药对身体有益。
- (3) a. 운동은 건강에 유익하다.
b. 运动对健康有益。
- (4) a. 이 책은 학습에 도움이 된다.
b. 这本书对学习有帮助。
- (5) a. 그의 생각은 계획의 실행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b. 他的想法对计划的实施产生了极大的负面影响。

‘목표’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을 의미²⁰⁾하며, ‘목적’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나타낸다.²¹⁾ 이 둘의 공통된 속성은 아직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현상태로 나아가려는 방향성에 있다.

첫 번째 예문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이 약(감기약)의 목표는 감기의 치료에 있다. 이 약을 먹으면 감기에 걸린 사람이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 감기가 치료되는 상태로 이동한다. 이는 감기약의 목표가 실현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감기·몸·건강·학습은 약·보약·운동·책의 영향을 받아 목표나 목적을 실현하는 상태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

이 용법의 기본적 구조는 ‘작용자+저+피작용자+실현을 나타내는 술어’이다. 3.9.1과의 차이점은 술어를 활성화시키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3.9.1에서는 ‘저’의 목적어가 술어를 활성화시키지만, 3.9.2에서는 ‘저’ 앞에 위치하는 주어(작용자)가 술어를 활성화시킨다.

3.9.3 어떤 움직임이 미치는 대상

한국어 조사 ‘-에’가 ‘앞말이 어떤 움직임이 미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의 용법으로 사용될 때, 중국어는 전치사 ‘给’, ‘为’ 등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 (1) a. 나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
b. 我给花浇了水。
- (2) a. 그는 가난한 아이들의 단체에 선물을 준다.
b. 他给贫穷孩子们的团体送礼物。
- (3) a. 신문사에 글을 써 준다.
b. 为报社写文章。
- (4) a. 이 소설책에 서문을 쓴다.

20) 국립국어연구소, 『표준국어대사전』, 서울:두산동아출판사, 1999, p.2198

21) 국립국어연구소, 『표준국어대사전』, 서울:두산동아출판사, 1999, p.2194

b. 为这本书写一篇序。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어떤 작용이나 움직임이 미치는 대상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고 있으나, 중국어로 표현시에는 이 둘을 구분해야 한다. 3.9.1의 ‘어떤 작용이 미치는 대상’과 3.9.3의 ‘어떤 움직임이 미치는 대상’의 차이점은 서술어의 성격에 있다. ‘어떤 움직임이 미치는 대상’에 사용되는 술어는 ‘(물을) 주다’, ‘(선물을) 주다’, ‘(글을) 쓰다’ 등과 같이 동작성을 가진다. 이에 반해, ‘어떤 작용이 미치는 대상’에 사용되는 술어는 ‘관심이 있다’, ‘열의가 대단하다’ 등과 같이 동작성이 없다. 즉, 서술어가 동작성을 가지면 ‘어떤 움직임이 미치는 대상’으로 볼 수 있고, 서술어에 동작성이 없으면 ‘어떤 작용이 미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3.9.4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

한국어 조사 ‘에’가 ‘앞말이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의 용법으로 사용될 때, 중국어는 ‘술어+ 목적어’ 구조를 사용하거나, 被자문을 사용해 표현이 가능하다.

- (1) a. 그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오.
b. 不要被他的谎言所欺骗。
- (2) a. 위조증명서에 속지 말자.
b. 不要受伪造证件的骗。(∅)
- (3) a. 그의 속임수에 걸리지 마라.
b. 不要受他的骗。(∅)
- (4) a. 선생님의 칭찬에 기뻐하다.
b. 受到老师的夸奖很开心。(∅)

여기서 ‘앞말이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이라는 것은 조사 ‘-에’

앞에 위치한 명사의 속성을 고려해야 의미가 명확해진다. ‘거짓말’이라는 단어에는 ‘속임’이라는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즉 ‘거짓말’이라는 단어 속에는 ‘속이다’라는 움직임이 내재되어 있으며, ‘거짓말’과 앞말이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 ‘-에’가 결합할 때, 거짓말 때문에 야기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술어가 호응하게 된다. ‘칭찬’도 마찬가지다. ‘칭찬’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함’이라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칭찬’과 앞말이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는 대상을 나타내는 조사 ‘-에’가 호응할 때, 칭찬으로 인해 야기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술어가 호응한다.

3.9.5 수단, 방법 따위의 대상

한국어 조사 ‘-에’가 ‘앞말이 수단, 방법 따위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의 용법으로 사용될 때 ‘~을 이용하여’, ‘~을 도구로 하여’란 뜻을 나타내며, 중국어에서는 동사 ‘用’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 (1) a. 우리는 햇볕에 옷을 말렸다.
b. 我們用阳光晒干衣服。
- (2) a. 할머니는 강물에 옷을 씻는다.
b. 奶奶用河水洗衣服。
- (3) a. 예전에는 등잔불에 글을 읽었다.
b. 以前用油灯照亮了屋子。

예문 (68)~(70)은 동사 ‘用’을 사용하여 ‘수단, 방법의 대상’을 표현하였다.

3.9.6 기준 대상

한국어 조사 ‘-에’가 ‘앞말이 기준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의 용법으로 쓰일 때, 중국어로는 ‘동사+대상을 나타내는 목적어’나 ‘동사

+于+대상을 나타낸 목적어'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1) a. 그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b. 那是有违礼貌的行为。(∅)
- (2) a. 학생신분에 벗어났다.
b. 摆脱学生身份。(∅)
- (3) a.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다.
b. 违背历史事实。(∅)
- (4) a. 시대에 뒤떨어지는 생각은 하지 마라.
b. 不要怀有落后于时代的想法。

예문 (71)~(73)은 '동사+대상을 나타내는 목적어'의 형식으로, (74)는 '동사+于+대상을 나타낸 목적어'의 형식으로 '기준대상'을 표현하였다.

3.9.7 비교 대상

한국어 조사 '-에'가 '앞말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의 용법으로 사용될 때, '-에'는 비교의 기준점이 되는 말에 붙어 '그 기준과 비교하면'의 뜻을 나타낸다. 이 때, 중국어로는 전치사 '跟', '和'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 (1) a. 엄마는 나의 성적을 옆집 아이의 성적에 비교한다.
b. 妈妈拿我的成绩跟邻居家孩子的成绩比较。
- (2) a. 금전도 명예도 사랑에 비길 만한 것은 못 된다.
b. 金钱, 名誉都不能跟爱情相比较。
- (3) a. 그 학생의 대답은 정답에 가까웠다.
b. 那个学生的答案跟正确答案接近。

3.9.8 지정 대상

아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국어 조사 '-에'가 '앞말이 지정하여 말하고자 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의 용법으로 사용될 때, 중국어는 전치사 '据', '有关' 등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 (1) a. 일기예보에 의하면 오늘 비가 온답니다.
b. 据天气预报说今天有雨。
- (2) a. 보도에 의하면 어제 또 교통사고가 일어났답니다.
b. 据报道, 昨天又发生了一起交通事故。
- (3) a. 이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오시오.
b. 请完成有关这个问题的报告。
- (4) a. 출판에 관한 문제
b. 有关出版的问题。

예문 (78), (79)는 '据'를 사용하여, (80), (81)은 '有关'을 사용하여 '지정하여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표현하였다.

이상 3.9에서 살펴 본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²²⁾

<표2>

구분	'에'의 용법	항상 '저'로 표현이 가능한지 여부	비 고
----	---------	---------------------	-----

22) 이 밖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없는 대상 관련 조사 '-에'의 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조사 '-에'의 앞말이 '비유의 기준'임을 나타내는 용법이다. 이런 경우, 중국어에서는 동사로 직접 표현한다. (인생은 종종 항해에 비유된다. / 人生常常被比喻为航海。∅) 두 번째는 조사 '-에'의 앞말이 '심리상태나 인지상태가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용법이다. 高菲(2009:54)에 따르면, 이 때 중국어 전치사 '在'와 대응되며, '잠기다', '빠지다', '겹다'와 같은 서술어가 쓰인다. (그는 생각에 잠겨 울고 있었다. / 他沉浸在悲伤中痛哭。)

1	앞말이 어떤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술어를 활성화시키는 주체가 '저'의 목적어
2	앞말이 목표나 목적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술어를 활성화시키는 주체가 문장의 주어
3	앞말이 어떤 움직임이 미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4	앞말이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5	앞말이 수단, 방법 따위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6	앞말이 기준되는 대상이나 단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7	앞말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8	앞말이 지정하여 말하고자 하는 대상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IV. '-에'와 '저'의 대응 조건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조사 '-에'가 대상 용법으로 사용되는 8가지 경우, 항상 '저'와의 결합이 가능한 것은 '작용이 미치는 대상'의 용법과 '목표나 목적대상'의 용법 두 가지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용법과 나머지 6가지 용법 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기동(1981)은 '-에'의 기본 의미는 장소라고 보았다. “아이가 추위에 떨고 있다”라는 문장에서, 아이가 떠는 것은 추위는 그대로 있는데 아이가 추운 곳으로, 또는 추운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에'의 기본 의미 '장소'가 의미 확대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에' 앞에 위치하는 명사는 장소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적이고 움직이지 않으며, 다른 성분이 '-에' 앞에 위치하는 명사 쪽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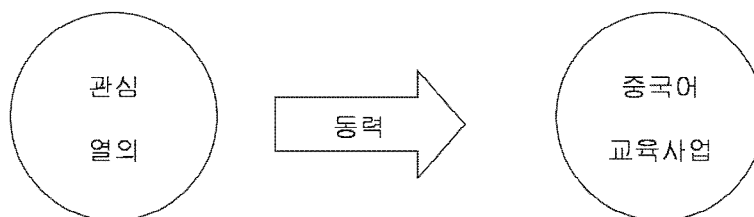
이를 바탕으로 먼저 항상 '저'와의 대응이 가능한 용법부터 살펴보자. '3.9.1 작용이 미치는 대상'에서 살펴 본 예문은 다음과 같다.

- (49') a. 그는 중국어에 관심이 있다.
 b. 他对汉语很感兴趣。
- (50') a. 그는 교육 사업에 열의가 대단하다.
 b. 他对教育工作很有热情。
- (51') a. 그의 거짓말에 두려움을 느낀다.
 b. 对他说的谎言感到恐怖。
- (52') a. 나는 그의 병세에 대해 관심이 많다.
 b. 我对他的病情很关心。
- (53') a. 이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
 b. 我对这种方式不大习惯。

(49') 예문인 “그는 중국어에 관심이 있다”라는 문장을 분석해 보면, ‘중국어’는 가만히 있는데, 그의 ‘관심’이 ‘중국어’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0') 예문 “그는 교육 사업에 열의가 대단하다”라는 문장에서는 ‘교육 사업’은 가만히 있는데, 그의 ‘열의’가 교육 사업으로 움직임을 알 수 있다. (51') 역시 마찬가지다. 거짓말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거짓말’은 가만히 있는데, 화자가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52')와 (53')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구조화하면 ‘X에 Y’로 나타낼 수 있고, Y에서 X로 동력흐름(energy flow)²³⁾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3) 김종도(2002:151)에 따르면 인지문법은 이 세계 내에 있는 물체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어느 한 물체 자체가 방출하는 동력(energy)이나 외부로부터 흡수한 동력이 이웃 물체에게 이동되고, 이 동력에 영향을 받은 물체가 다시 자신의 이웃 물체에게 동력을 전달하는 연쇄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 연쇄작용에서 동력 이동에 관련되는 개체를 연결 고리로 보면 이 작용을 사슬처럼 연결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사슬에는 출발점이 있고 흐름의 방향이 있는 것이 강물의 흐름에 비유할 수 있는데, 여기서 흐르는 것이 동력이므로 이 흐름을 동력흐름(energy flow)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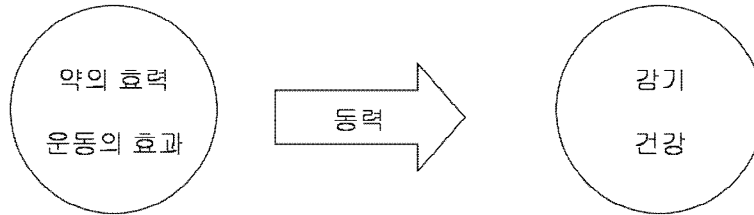


‘3.9.2 목표나 목적 대상’ 용법에서 예로 든 문장을 살펴보자.

- (54) a. 이 약은 감기에 잘 듣는다.
b. 这种药对感冒很有效。
- (55) a. 보약은 몸에 좋다.
b. 补药对身体有益。
- (56) a. 운동은 건강에 유익하다.
b. 运动对健康有益。
- (57) a. 이 책은 학습에 도움이 된다.
b. 这本书对学习有帮助。
- (58) a. 그의 생각은 계획의 실행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b. 他的想法对计划的实施产生了极大的负面影响。

(54)의 “이 약은 감기에 잘 듣는다”라는 문장을 분석해 보면 Y인 약의 효력이 X인 ‘감기’로 동력이 전달되는 방향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55)의 “보약은 몸에 좋다”는 문장에서도 Y인 ‘보약’의 좋은 효과가 X인 ‘몸’으로 전달되는 동력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6)의 “운동은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문장 역시 Y인 운동의 효과가 X인 ‘건강’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7) 역시 ‘책’의 도움이 되는 요소가 ‘학습’으로 전달되고 있으며, (58) 또한 ‘생각’의 어떤 요소가 ‘실행’에 전달됨을 알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를 정리해 보면 ‘작용이 미치는 대상’ 용법과 ‘목표나 목적 대상’ 용법은 ‘Y에서 X로의 동력성 전달구조’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적 관계가 나머지 6가지 대상 용법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

‘3.9.4 어떤 움직임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 용법을 살펴보면 Y에서 X로의 동력성 전달구조라고 볼 수 없다.

- (63) a. 그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오.
b. 不要被他的谎言所欺骗。
- (64) a. 위조증명서에 속지 말자.
b. 不要受伪造证件的骗。(∅)
- (65) a. 그의 속임수에 걸리지 마라.
b. 不要受他的骗。(∅)
- (66) a. 선생님의 칭찬에 기뻐하다.
b. 受到老师的夸奖很开心。(∅)

예문 (63) “그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오”에서 ‘속임’은 ‘거짓말’의 결과이지 동력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64) “위조증명서에 속지 말자”는 문장 역시 ‘속임’은 ‘거짓말’의 결과일 뿐이다.

‘3.9.5 수단, 방법 따위의 대상’ 용법 역시 ‘Y에서 X로의 동력성 전달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 (67) a. 우리는 햇볕에 옷을 말렸다.
b. 我们用阳光晒干衣服。
- (68) a. 할머니는 강물에 옷을 씻는다.
b. 奶奶用河水洗衣服。
- (69) a. 예전에는 등잔불에 글을 읽었다.
b. 以前用油灯照亮了屋子。

예문 (67)의 “우리는 햇볕에 옷을 말렸다”는 문장에서, ‘옷을 말림’은 ‘햇볕’에 아무런 동력성을 전달하지 못한다. (68)도 ‘옷을 씻음’이 ‘강물’에 동력성을 전달하지 못하며, (69)도 ‘글을 읽음’이 ‘등잔불’에 동력성을 전달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3.9.6 기준 대상’ 용법을 살펴보자.

- (70) a. 그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b. 那是有违礼貌的行为。(∅)
- (71) a. 학생신분에 벗어나다.
b. 摆脱学生身份。(∅)
- (72) a.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다.
b. 违背历史事实。(∅)
- (73) a. 시대에 뒤떨어지는 생각은 하지 마라.
b. 不要怀有落后于时代的想法。

예문 (70)에서 ‘그것’이 ‘예의’에 동력성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고, ‘어긋나는 행동’이 ‘예의’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고 할 수도 없다. (71)에서도 ‘벗어남’이 ‘학생신분’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없다.

‘3.9.7 비교 대상’ 용법 역시 마찬가지다.

- (74) a. 엄마는 나의 성적을 옆집 아이의 성적에 비교한다.
 b. 妈妈拿我的成绩跟邻居家孩子的成绩比较。
- (75) a. 금전도 명예도 사랑에 비길 만한 것은 못 된다.
 b. 金钱, 名誉都不能跟爱情相比较。
- (76) a. 그 학생의 대답은 정답에 가까웠다.
 b. 那个学生的答案跟正确答案接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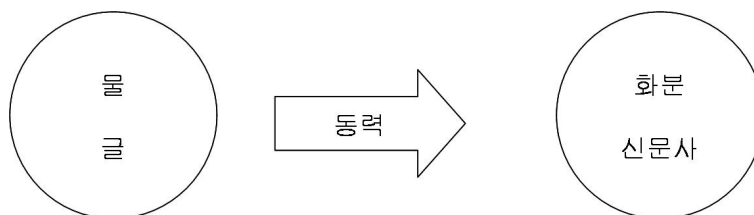
예문 (74)에서 ‘나의 성적’은 ‘옆집 아이의 성적’에 동력성을 전달하지 못하며, ‘비교함’이 ‘옆집 아이의 성적’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75)에서도 ‘금전, 명예’가 ‘사랑’에 동력성을 전달하지 못하며, ‘비길’이 ‘사랑’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없다.

‘3.9.8 지정 대상’ 용법을 보자.

- (77) a. 일기예보에 의하면 오늘 비가 온답니다.
 b. 据天气预报说今天有雨。
- (78) a. 보도에 의하면 어제 또 교통사고가 일어났답니다.
 b. 据报道, 昨天又发生了一起交通事故。
- (79) a. 이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오시오.
 b. 请完成有关这个问题的报告。
- (80) a. 출판에 관한 문제
 b. 有关出版的问题。

예문 (77)에서 ‘오늘 비가 옵’이 ‘일기예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거나, 동력성을 전달한다고 볼 수 없다. (79) 역시 ‘보고서 작성’이 ‘이 문제’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거나, 동력성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3.9.3에서 살펴 본 ‘어떤 움직임이 미치는 대상’ 용법은 ‘작용이 미치는 대상’ 용법과 ‘목표나 목적 대상’ 용법과 마찬가지로 동력이 전달된다.



- (59') a. 나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
 b. 我给花浇了水。
- (60') a. 그는 가난한 아이들의 단체에 선물을 준다.
 b. 他给贫穷孩子们的团体送礼物。
- (61') a. 신문사에 글을 써 준다.
 b. 为报社写文章。
- (62') a. 이 소설책에 서문을 쓴다.
 b. 为这本书写一篇序。

예문 (59') “나는 화분에 물을 주었다”에서 ‘물’에서 ‘화분’으로 동력이 전달됨을 알 수 있다. (61') “신문사에 글을 써 준다”에서도 ‘글을 써 줌’과 ‘신문사’ 간에 동력이 전달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장들은 한 쪽에서 다른 한 쪽으로 동력이 전달되기는 하지만, 한국어 문장구조상 ‘작용이 미치는 대상’ 용법과 ‘목표나 목적 대상’ 용법과 다르다. ‘작용이 미치는 대상’ 용법과 ‘목표나 목적 대상’ 용법의 한국어 문장구조는 ‘(S)+ 대상NP+ VP’인 반면, ‘어떤 움직임이 미치는 대상’ 용법의 한국어 문장구조는 ‘(S)+ 대상NP+ O+ VP’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조사 ‘-에’가 대상 용법으로 사용되는 8가지 경우, 항상 ‘저’와의 대응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첫째, 한국어 문장구조가 ‘(S)+ 대상NP+ VP’여야 한다. 둘째, 의미상 한 쪽에서 다른 한 쪽으로 동력이 전달되어야 한다.

V. 결론

앞에서 우리는 ‘-에’는 총 15가지 용법이 있으며, 이 중 대상관련 용법이 그 절반을 차지하므로, 대상관련 용법 중의 특정 용법과 항상 대응하는 중국어 전치사를 찾아낼 수 있다면,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그 특정 중국어 전치사가 ‘저’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가설의 검증을 위해 ‘-에’의 의미 및 용례와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대상 관련 ‘-에’의 8가지 용법 중, ‘저’와 항상 대응이 가능한 용법은 ‘작용이 미치는 대상’ 용법과 ‘목표나 목적 대상’ 용법이다.

둘째, ‘작용이 미치는 대상’ 용법에서는 술어를 활성화시키는 주체가 ‘저’의 목적어인 반면, ‘목표나 목적 대상’ 용법에서는 문장의 주어이다.

셋째, ‘-에’가 대상 용법으로 사용되는 8가지 경우, 항상 ‘저’와의 대응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한국어 문장구조가 ‘(S)+ 대상NP+VP’여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의미상 한 쪽에서 다른 한 쪽으로 동력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어는 조사의 사용이 많은 언어이다. 이 때문에 한국어의 다양한 조사를 중국어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문제는 중국어를 공부하는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그리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조사 ‘-에’ 중에서 ‘대상’ 관련 용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나, 앞으로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전치사간의 대응에 대한 더욱 활발한 연구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소, 『표준국어대사전』, 서울:두산동아출판사, 1999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중한사전』, 서울: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6
- 강석진 외편, 『중한사전』, 서울:진명출판사, 1997
-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5版)》, 北京:商务印书馆, 2008
- 李行健, 《现代汉语规范词典》, 北京: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04
-
- 김종도 율김, 『인지문법의 토대』, 서울:박이정, 1999
- 김종도, 『인지문법의 디딤돌』, 서울:박이정, 2002
- 김종호, 『도표로 보는 정통중국어 문법』, 서울:한티미디어, 2007
- 임지룡·김동환 율김, 『인지언어학 용어사전』, 서울:한국문화사, 2010
- 허성도, 『현대중국어 어법의 이해』, 서울:사람과 책, 2005
- 黎锦熙, 《新著国语文法》, 湖南:湖南教育出版社, 2007
- 刘月华, 《实用现代汉语语法》, 北京:商务印书馆, 2001
- 吕叔湘, 《现代汉语八百词》, 北京:商务印书馆, 2009
- 朱德熙, 《语法讲义》, 北京:商务印书馆, 2008
-
- 강기진, 「國語 助詞 ‘에’의 意味機能」, 동국국어학논문집(Vol.13), 1986
- 高菲, 「한국어 조사와 중국의 개사의 대조연구: ‘-로’, ‘-에’, ‘-에서’, ‘-에게’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남승주, 「‘에’계 형식어사의 기능에 대한 연구-‘에’, ‘에게’를 중심으로-」, 睡蓮語文論集(Vol.12), 1985
- 박창수, 「한국어 조사 ‘에’, ‘에서’와 상응하는 중국어 표현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슬지엔, 「한국어 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대조연구 : 격조사 '-로'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왕봉, 「한국어 助詞와 중국어 介詞의 대응관계 연구 : '~에, ~에서, ~에게'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안명철, 「치격 '에'의 의미」, 관악어문연구(Vol.7), 1982
- 이기동, 「조사 '에'와 '에서'의 기본 의미」, 『한글』173·174, 1981
- 이광호, 「치격어미 '에', '에서'의 의미와 그 통합양상」, 어문학논총(Vol.3), 1984
- 황정숙,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 에게, 에서, 로'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호정은, 「조사 '에'의 의미와 통사 현상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홍순성, 「시간부사와 격조사 '~에'의 공기(共起) 관계」, 한민족어문학회 (Vol.42), 2003
- 邱力, 「현대중국어 '저' 개사구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林莉铭, 「现代汉语介词对字结构的考察」, 广西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05
- 赵玉娟, 「现代汉语对字句研究」, 山西大学硕士学位论文, 2007

<Abstract>

Research on the Chinese expression corresponding to the Korean '-에'
focus on preposition '对'

Kim Jong Ho · Nam Ryang Woo

Korean postposition '-에' has many usage in Korean sentence. So when you translate Korean sentences including '-에' into Chinese, it is difficult for you to translate them exactly.

According to 『표준국어대사전』, there are 15 different kinds of usage of '-에' and among them, 7 kinds of usages are related to 'object'. Therefore when you use '-에' as a certain 'object' usage, and if you can find out particular Chinese preposition that it always corresponds to, it is helpful to Chinese learners. This study shows us the Chinese preposition is '对'.

Key Words : Korean postposition '-에', preposition '对', object, translation

투 고 일 : 2011. 1. 10. / 십 사 일 : 2011. 1. 20. ~ 2011. 2. 10. / 게재확정일 : 2011. 2. 17.